

##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

### For a Competitive Spirit

이정무 / 건설교통부 장관

by Lee Jeong-Moo

존경하는 이의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인구 의원님과 송현섭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우리는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도가 속출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되는 등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온 듯 합니다. 우리 건설산업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중 건축설계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건축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정부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 각 부문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됐던 용도변경허가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시행령이 최근에 다 완비가 돼서 곧 대부분이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라는 것은 결국 건축사 여러분의 창의와 경쟁, 소비자 위주의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급하는 건축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소비자 위주로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해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각

자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인해 우리 기업이라든가 전문가의 금지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금년에 대부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은 6% 증액해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있고, 또 주택건설 면에서도 작년에도 여러 가지 소비자 금융 등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서 건설과 주택경기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SOC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한 8천억 이상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택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최대한도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공부문이라든가 금융 기업 여러 부문에 걸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지 않아 경제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소중한 자리는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재결집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여러분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설계의 질 향상과 성실한 감리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편승해서 양적성장에 치중한 결과 건축의 질적발전을 등한시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많은 건물을 짓고 또 양적 확장을 위해 설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기울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높아져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관심, 또 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소득향상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이런 경향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인간의 삶을 담은 건축 공간을 창조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설계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건축가연맹에서는 국가 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표준안을 이미 작성하였으며, 머지 않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21세기의 건축설계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은 모두 사라지고 전 세계의 건축사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경쟁력 확보라는 것이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과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도 새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의구 신임회장님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건축사협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건축분야의 어려움과 시련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소중한 자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